

# 일제시대 민족주의 투영된 고대사의 위서 《단기고사》

위서의 사회사 — 7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우리 상고사서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위서가 있다. 《단기고사》도 저자, 저작연도, 저작어 등에 많은 의문이 따르는 출처불명의 위서다. 내용 도처에서 보이는 근대적 용어와 사고방식들은 이 책이 과연 발해시대에 저술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위서 시비와는 상관없이, 이 책이 근대의 저항민족주의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단기고사(檀奇古史)》는 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大野勃)이 쓴 것으로 전한다. 발해 무왕 1년인 719년 3월 3일에 지었다고 한다. 내용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다. 단군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고대국가사의 하나라고 하겠다.

우리 상고사서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위서가 있다. 《단기고사》도 저자, 저작연도, 저작어 등에 많은 의문이 따르는 출처불명의 위서다. 내용 도처에서 보이는 근대적 용어와 사고방식들은 이 책이 과연 발해시대에 저술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책의 원문은 발해문이었다고 하는데, 약 300년 뒤 황조복(皇祚福)이란 사람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1959년 정해박(鄭海珀)이 한문본을 다시 번역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발해문 원본은 물론 한문본도 전하지 않는다.

## 단군과 기자조선의 연대기를 기록해

책의 내용은 저자 대야발의 서문에 이어 제1편 전단군조선, 제2편 후단군조선, 제3편 기자조선으로 구성돼 있고,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李庚植)의 중간서(重刊序)와 단재 신채호의 중간서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경직은 1907년에 쓴 중간서에서 중국인 왕상춘(王常春)에게서 이 책의 일부를 얻어왔다고 썼다.

신채호는 1912년에 쓴 《단기고사 중간서》에서

중국 안동현에 있을 때 지우(志友) 이화사(李華史)로부터 처음 얻어본 것이라고 입수 경위를 밝혔다.

《단기고사》에서 취급한 단군조선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자.

제1세(第一世) = 길림성 서부 평양에 도움을 정하였다.

부루(夫婁) 2년 = 춘정월 대련(大連)을 섭사직으로 삼고 소련(小連)을 사도로 삼다.

가근(嘉勤) 8년 = 강거(康居)가 반하거늘 제(帝) 지백특에서 이를 도형하다.

가근 20년 = 제 동으로 순렵하사 창해에 이르러...

조사구(鳥斯丘) 원년 = 추(秋) 하국(夏國) 사절이 입조하다.

구을(丘乙) 4년 = 춘(春) 하국 사절이 내조하다.

구을 5년 = 춘 하국 학자가 역서와 두건갑자기(斗建甲子記)를 가지고 입조하다.

달문(達門) 35년 = 제가 열국 왕후를 상춘에 모으니 대국이 돌이고 소국이 스물이요 추장이 360이더라.

서한(西翰) 3년 = 달돌국 사절이 내조하다.

아한(阿漢) 36년 = 사람이 중화로부터 와 하국군 걸이 무도하여 장차 망할 것이라고 전하니 제 가라사대 “하국이 장차 망할 것은 나도 이미



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연대기를 기록한 《단기고사》는 출처불명의 위서로 꼽힌다.

알고 있노라” 하시더라.

고불(古佛) 10년 = 만고후(晩考侯) 반하거늘 오성을 보내서 토평하다.

고불 36년 = 발해변에 황룡이 나오고 인어 한 쌍이 상륙하다.

고불 38년 = 은국 사절이 내조하니 견사하여 회사하다.

종년(縱年) = 북흉노가 변방에 도적질하거늘 군사를 보내어 쳐서 물리치다.

소불누 36년 = 역신 신독이 기병하여 제성을 점령하거늘 제 영고탑에 피난하니 이때부터 인민이 영고탑에 이거하더라.

솔나(率那) 39년 = 제 길림에서 영고탑에 이도하시다. 전단조 제1세 단제로부터 제25세 솔나 재위 39년까지 25대에 걸친.

여기서 현대인들이 읽기 어렵고 알쏭달쏭한 제1세·부루·가조·조사·구을 등의 이름은 단군조선의 역대 왕을 호칭한다. 물론 제1세는 단군조선을 창업한 단군왕검을 가리킨다.

《단기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단군조선의 왕명을 《규원사화》와 대조하면 25대까지는 부합하지만 각 왕의 재위 연수가 크게 다르며 《단기고사》는 전단군조선의 총 왕수를 25대 1223년이라고 하고, 기타 주요 기사가 부합되거나 그렇지 못한 내용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사서의 신뢰성에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 신체호의 <중간서>도 위작일 가능성 높아

단체 신체호는 이 책의 <중간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다. <신체호 전집>에 실린 <중간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 《단기고사》중간서

천하의 승덕과 대업이 누가 애국자보다 승할 수가 있으리오.

진애국자는 국사외에는 죽히 써 개의할 것이 없는 고로, 국사를 버리고는 즐기고 좋을 것도 없고, 희망할 것도 없고, 우환도 없고, 쟁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다.

진애국자는 국사를 시무할 시는 잔한하다 할 바도 없고, 위협하다 할 바도 없고 불가하다고 할 바도 없고 성공하였다 할 바도 없고, 실패하였다 할 바도 없고, 지금은 그만두자 할 바도 없을지라.

또 진애국자는 그 애국하는 방식이 같지 아니하니 혹은 설(舌)로 하고 혹은 혈(血)로 하며, 혹은 필(筆)로 하고 혹은 검(劍)으로 하고 혹은 기개로 하되,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따르도다.

잘 쓰는 자는 서로 모순(矛盾)은 있을지라도 그 향하는 바, 곡은 마침내 동일한 목적으로 상합지 아니함이 없을지라. 대개 동서의 국가와 고금의 민족이 수천 수백이나 그 영특히 보존하는 자는 백의 일에 불과하다. 피(彼)의 고취(鼓吹)하며 주성(鑄成)하며, 체결(締結)하며 장엄(莊嚴)하며, 춤 춤을 누가 감복하지 아니하리오. 애국자의 심혈(心血)과 뇌력(腦力)과 필검(筆劍)으로서 사실이 수만에 그치지 않고 영웅호걸과 충의열사가 수천인 이상이나 단기사적에 당하여는 억년이 미상하다 하고 주무왕(周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였다 하며, 김부식 같은 썩은 선비는 망언하기를 이사(夷事)는 가히 상고할 수가 없고 이언(以言)은 부지의(不知義)라 하였다.

저 중화인의 못글은 자기만 높이고 타인은 업신여기며, 동족은 찬양하고 외족은 업신여기며, 자기 나라 외에는 전부 오랑캐라 일컬으니, 그런 서적은 비록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도 우리 사기(史記)의 실적은 참고키 어려우니, 참말 여기에 이르러서는 책을 덮어놓고 통한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임자(壬子)년에 내가 안동현에 이르를 때에

지우 이화사가 일권 고사(古史)를 가지고 와서 장차 출간할 뜻으로 내게 서문(序文)을 청하거늘, 심히 이상히 여겨 그 책을 받아 재삼 독람하니, 발해국 반안궁왕 대야발의 편찬인데, 발해 대문인 황조복이 중간한 책, 즉 대답하기를 문인(文人) 유응두는 고금을 박봉한 석학이라 일찍 중화각지에 놀다가 우연히 한 서점에 들어가서 이용암 윤규 등에 당부하여 수권을 등사케 하여 장차 중간할 예정이라 한다.

오호라. 내 또한 생각하기를 단기 이천년사가 반드시 실사가 있을 텐데, 아직 상고할 곳이 없는 것은 여러번 병화를 경과하여 국사를 능히 보존치 못하였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하였더니, 명천은 사실로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유씨로 하여금 이 원본(原本)을 구독하여 세상에 공현(公現)케 하였으니, 유씨의 얻어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그가 평생의 요구하는 염성중에서 얻어왔으니, 누가 기뻐하여 읽지 아니하며, 누가 강하여 전치 아니하리오.

실로 우리 단기 이천년사가 다시 이 세상에 명랑케 됨은 참 천고의 기사(奇事)로다. 원저 주인공 대야발 선생은 십 삼여 성상을 노력하여 친히 고적을 전하여 중사(中史)를 참고하여 정선 편찬하고, 그 백 여년 후에 발해 대문인 황조복이 중간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였으니, 두 선생의 우리 민족에게 유공함이 다대하도다.

두번 전하는 일에 관하여는 유·이(柳李) 양씨의 공도 또한 적지 아니한지라. 오호라. 대야발·황조복 양선생은 맘과 붓으로서 곡(曲) 가름을 위하여 노력과 혈성을 다한 진애국자요, 유·이 양씨도 심력과 필력으로 애국진성자니, 후인이 번역하여 계속 간행하여 세상에 광포하면 또한 이 만고불멸의 공이 되리로다.

임자(壬子) 중춘

#### 존재를 입증할 기록 전혀 없어

오랫동안 한국고대사를 연구해온 이상시(李相時) 변호사는 <단군실사에 관한 고증연구>(1990, 고려원)에서 <단기고사>의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 책이 위서임을 주장했다.

첫째, 구한국의 학부편집국장이 <단기고사>를 공식적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80년 전의 일이므로 그 사실

이 왕조실록이나 다른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야 할 것은 물론 그 잔질(殘帙)이 한두 권쯤은 현재까지 전해오거나 그것을 인용해 저술된 문헌이나 저서 등 기록이 간혹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단체 신체호가 1912년 <단기고사>를 보고 감명받아 그 중간서문을 썼을 정도였다면 필시 단체의 사관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그 14년 후인 1926년에 <조선상고사>를 저술할 당시에 그 사실이 반영됐을 것인데도 단체가 남긴 어느 저서나 논문 혹은 전기(傳記) 등에도 <단기고사>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

셋째, 3400년 전의 단군조선 시대에 지구·금성·수성 등 위성이 태양의 외곽을 공전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거나 자발전차, 경기구 등과 같은 과학적인 전기기계제품을 발명했다거나 혹은 그 당시의 인구가 1억8천호였다는 등 인류사와 문화의 발전과정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사실로 기록된 <단기고사>의 내용으로 보거나 <단기고사>의 복간본(1959, 10) 서문에 “6·25 동란으로 <단기고사>의 번역본이 전부 소실되어 단기고사에 대하여는 아는 자가 희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을 종합해볼 때 현존하는 <단기고사>는 1959년 10월 복간 당시에 날조된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원 <단기고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위서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영훈씨(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이 책의 저술년대에 대한 시비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이 책이 한말 일제기에 공개되고 보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 시대상황 내지 지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저항민족주의적 상황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요청하였는데, 이 <단기고사>가 이 요청에 기능적으로 부응해주었던 것이다”고 민족주의 측면에서 기여도를 평가했다.●